

데스크칼럼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 불리웠다. 그만큼 예술의 지평이 넓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다방에서 전시가 열리고, 웅만한 식당에는 회화 한 점 걸려 있던 곳이 광주였다. 남종화의 분향이었고,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화가 됐다. 미술계에 여전히 성행하는 레지던시 역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경장작센터와 팔각정 스튜디오를 오픈, 운영한 곳 또한 광주였다. 이처럼 처음으로 기록된 ‘예술적 키워드’가 부자인 곳이 광주다.

이같은 찬연한 예향에 대한 카테고리는 하루 이틀사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미적 감각 혹은 예술에 대한 열린 인식이 더해져 일찍부터 그 흐름이 형성됐던 것이다.

회화에 의재 허백련 오회호, 문학에 용아 박용철 다형 김현승, 국악에 국장 임방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장들이 즐비하게 배출됐고, 그 면면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근래에는 한강이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또 한번 광주의 예술적 자산이 확보됐다. 타지역의 시각이 의식돼 한강이 광주 사람이라는 소리를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으나 내적 자부심

이 도시의 예술적 희망 어디에서 봐야 할까

은 숨길 수가 없었다. 한국문학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라도만의 경사는 아니고, 전국민의 경사이자 쾌거였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나갔다. 그럼에도 예술계 거목들이 즐비한 광주의 고민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문화도시니, 문화중심도시니 하는 명칭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 문화도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반문에는 흔쾌히 대답할 수 없다.

아짜다 서울에서 예술계 손님들이 찾아오면 의외로 데려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데서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명칭이 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겠다’고 강한 정책 혹은 의구심을 거둬들일 수 없는 현실이 아박하기 그지없다.

현시대 광주는 어찌다 문화도시나 예술도시의 가장 높은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의아하다. 예술적으로 보면 막강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전국을 주름잡는 신예 예술가들도 넘쳐나야 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인적 자산은 물론이고 공간에 관한 문제도 간단치 않다. 광주정도 되면 적어도 도심에 ‘예술특구’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타지 사람들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 명의 예술가가 해당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이틀테면 의재 허백련이 있다면 의재의 공간들과 그의 삶 및 회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미술관이 자리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만약 의재의 작품만을 본다면 미술관만 자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의재의 명성 때문이라도 의재의 생전 공간들은 대중들의 관심 자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점들을 묶어낼 때 그 파급력

은 증폭된다.

그래서 작품뿐만 가지고는 해당 예술가를 모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작가론 역시 중요하다. ‘작가가 어디에 살았고, 어디에서 전시를 했으며, 어디에서 작업을 했는가, 어떤 버릇이 있는가’는 그의 예술에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그 루트를 쫓아가고픈 욕망이 일반들에게는 생기게 마련이다. 오로지 작품으로만 그 예술가를 이야기한다면, 서사의 한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대중들의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과 지속해가는 일이 급방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예술특구같은 구역이다. 특정 예술가와 묶이지 않아도 되기에 예술에 관심이 있는 도시라면 실제 재원으로 관공까지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오늘날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광주의 경우 예술특구를 조성했을 경우 가장 설득력이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만약 예술의거리가 활성화됐다면 예술특구에 대한 설계가 확실하게 이뤄졌을 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의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다. 예술의거리는 특화거리로 조성된 지 40여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니 ‘예술’자가 들어간 공공의 공간이 기대만큼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술특구 하나 없으니 예술의거리라도 살아났더라면 덜 초라했을 것이다. 예술특구로 가능성이 있는 방직공장마저 근래 철거를 한 마당이다. 이 도시의 예술적 희망을 어디에서 봐야 할까 지문한다.

특별기고

문인

광주 북구청장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광주의 학생들은 굴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일본 학생에게 희롱당하던 나주역 사건에서 비롯된 분노는 항일의 합성으로 변졌고,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고보(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여고보(광주공립고등여자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식민지 치하에서 자주와 정의를 외친 청년들의 불굴의 정신이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지역적 시위가 아니라,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거대한 민족항쟁이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이들은 무력보다 양심으로, 침묵보다 외침으로 일제의 불의에 맞섰다. 그 용기와 희생은 훗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원류가 됐다. 광주는 언제나 시대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택한 도시였다.

그 중심에는 장석전 선생과 장재성 선생이 있다. 원도 신지도 출신의 장석전 선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상적 지도자였다. 1926년 비밀결사 ‘성진회’를 조직하고, 1929년 신간회 광주지회 상무간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일깨웠다. 선생은 전국 각지의 학생 시위를 조직적으로 연결해 광주의 봉기가 전국적 독립운동

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1935년 광주 누문동 자택에서 순국했으며,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북구는 2023년 5월 ‘애국지사 장석전’ 현판 제막식을 열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장재성 선생은 행동의 중심에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독서회 중앙부’ 핵심 간부로서 항일 시위를 주도하며, 청년 항일투쟁의 실천적 구심점이 됐다. 4년의 옥고를 지르며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광주지부에서 민족의 자주와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의 첫 정부는 그에게 훈장이 아닌 ‘총살’이라는 비극을 내렸다. 독립운동의 공로가 정치적 이념의 벽에 가려진 아픈 역사다.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잊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제라도 역사는 바로 세워지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유공자 서훈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함께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있다. 우리 북구도 장재성 선생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을 통해, 뒤늦게나마 진실의 빛을 갠 일에 함께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의 품으로 모셔오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을 떠난 곳에서도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의 혼이 오늘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이 바로 그 길 위에 살아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96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세계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이 구성, 100주년이 되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국내외 기록 발굴에 본격 나섰다.

이번 추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로는 처음 시도되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으로, 그 역사적 의미도 더욱 깊다.

당시 학생들의 편지와 옥중 기록, 전국 각지의 격문과 재판문서, 해외 동료 사회의 지원 자료 등 수많은 기록들이 발굴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멕시코·쿠바는 물론, 독일·중국·러시아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으며 일본의 학자들 또한 등재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본질이자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뿌리다.

그날의 학생들이 외쳤던 “조선의 독립 만세!”는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 정신이 광주의 품에서, 그리고 시민의 삶 속에서 영원히 빛나기를 소망한다.

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과 에너지 복지 확대도 기대된다. 전남은 배전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사업을 넘어, 에너지 자립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지정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전남이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분기점이다. 에너지를 생산·소비·관리하는 전 과정이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는 곧 일자리와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진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전남에겐 기회이자 시험대다.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를 분산형 생태계로 바꾸는 이 도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가능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설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고용안정’ 성과

정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하나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현장 중심 고용안정화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 청년·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등은 당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200만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때 광주시 지원금 400만원을 더해 600만 원을 주는 뿌리 내림 공제사업, 만 35세 이상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도와 장려금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자리 채용 지원금 등 2개 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됐다.

지역 80여개 뿌리기업과 36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사업 시행 3년째인 올해, 본격적인 지원 실적이 쌓이며 지역 제조업 현장의 고용안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행기관인 광주경총이 공동이용시설 개선, 주거비(월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실 광주경총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왔다. 사업 공고 이전부터 하남·진곡·첨단 등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기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추진 이후에는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원금 집행, 시설 개선, 복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온 것이다.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앞으로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터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인기 있는 이유는

광주 자치구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지역화폐가 인기다. 20% 가까운 할인율 덕분에인지 주민 구매열기가 뜨겁다. 출시되자마자 품절대란이 빚어질 정도다.

대표적인 게 북구의 선불카드(3·5·10·20·50만원) 형태인 지역화폐 ‘부끄머니’다.

지난 3일부터 광주는행 북구 소재 18개 지점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7일 기준 총 83억48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발행 규모 100억원의 83.48%가 닷새만에 판매된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발행 10일을 못넘기고 완판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18% 할인 혜택이 적용돼 4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50만원권의 경우 출시 초반부터 시민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져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에 북구가 50만원권 추가 제작을 요청해 광주은행이 600매를 부랴부랴 더 만들어 배부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지역 내 1만92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동구도 지난 9월 22일 선불카드형 ‘광주동구랑 페이’를 내놓았는데 지난 4일 기준 발행규모 50억원 중 42억7300만원이 판매되면서 40여일만에 85%를 돌파했다. 남구도 동구와 같은 날, ‘남구 동행카드’를 30억원 규모로 발행했고 지난 3일 기준 13억765만원(43.6%)어치가 판매됐다. 광산구도 지난 5일부터 최대 20% 할인율이 제공되는 지역화폐 ‘광산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정보무늬(QR) 형과 체크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다만 서구는 지역화폐 대신 관내 상점가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만들어 10%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데다 매달 10%할인혜택을 추가하는 이벤트행사까지 동시에 개최해 20%가까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특히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줘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하게 해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예산 부담, 일시적 경제활성화 한계 노출 등을 지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 광남일보                                                                       |                | www.GwangNam.co.kr    |                 |
|----------------------------------------------------------------------------|----------------|-----------------------|-----------------|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 주필 김상훈 편집위원 최현수 |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정 치 부 370-7010 | 는 설 실 370-7060        |                 |
|                                                                            | 경 제 부 370-7020 | 뉴미디어본부 370-7222       |                 |
|                                                                            | 사회교육부 370-7030 | 임 원 실 370-7000        |                 |
|                                                                            | 지역사회부 370-7040 | 총 무 국 370-7093        |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문화체육부 370-7234 | 사 업 국 370-7090        |                 |
|                                                                            | 문 집 부 370-7082 | 광 고 국 370-7070        |                 |
|                                                                            | 사 진 부 370-7050 | 독자관리국 370-7080        |                 |
|                                                                            |                | 서울지사 ☎878-7090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br>이메일 gndn2018@naver.com |
|---------------|-----------------------------------------------------------|